

반신불수 노점상 자살 비극

철거반 과잉단속에 포장마차 꿈 깨져

반신불수의 몸으로 부인과 4남매 등 식구들과 함께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던 장씨가 냉혹한 현실에 떠밀려 끝내 자살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43-2 골목길에서 장춘식(41·노점상·용산구 용문동 80-1)씨가 부근 술집의 3m 높이 물탱크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12만원의 셋방에서 부인 박신옥(39)씨와 딸 아름(8)양 등 3남1녀와 함께 7년 전쯤부터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던 장씨에게 시련이 닥쳐온 것은 지난해 10월 당국의 노점상 일제단속이 시작되

면서부터였다.

당시 1백20만여원의 '큰 돈'을 들여 어렵사리 포장마차 1대를 마련해 용산구 원효로 2가 녹지대에서 장사를 시작한 장씨는 불과 며칠 만에 용산구청 철거

10개월 월세 밀려...이웃 유족돕기 줄이어

반원들에게 손수레를 빼앗겨 버렸다.

장씨는 그뒤 포장마차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구청에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으나, 구청 관계자들의 대꾸는 오직 벌금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뿐이었다. 목돈 30만원을 마련할 힘이 없었던 장씨는 하는 수 없이 풀빵장사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큰 병을 앓아 한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는 장씨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 승주(13)·승국(12) 형제와 함께 손수레를 끌며 풀빵장사를 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못해 집세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월세마저 열달치나 밀리게 됐다.

더구나 집 주인이 집을 새로

짓겠다며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당장 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돼 버렸다.

장씨는 풀빵장사로든 도저히 살기가 어렵자 그동안 틈틈이 목재 등을 구해 집앞 골목에서 새 포장마차를 만들면서 영업할 날만을 기다렸다.

손수레가 거의 완성돼가던 지난 2일 낮 장씨는 미리 목을 보

아 두었던 신한은행 용산지점 앞에서 철거반원들에게 노점들이 무차별 철거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실의에 빠져 끝내 이날 저녁 목을 매고 말았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족과 살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끝내 장씨가 비판 자살하자 이웃 18동(동장 정상진·66) 70여가구의 주민들은 장씨의 죽음을 가슴아파하며 돈과 쌀 등을 모아 장씨 가족에게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숨진 장씨와 함께 10여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왔다는 이웃 주민 안철(27·상업)씨는 "남들

처럼 단속을 피해가며 장사할 처지도 못했던 형님이 마음놓고 노점상이나마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며 "세상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명명거리며 잘들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두어야만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백기철 기자〉

91.2.22

"날씨추우니 열흘만 철거보류"간청 묵살

집뜯긴 80대 할머니 자살

【부산=이수윤 기자】 무허가 건물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구청 철거반원들이 강제로 집을 철거하는 것에 항의해 극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20일 오전 11시께 부산 북구 구포2동 1046 김소남(84)씨가 사

는 무허가 집에 구청건설과 소속 일용직 등 직원 30여명이 찾아와 구남굴다리 확장공사에 편입된 이 집을 강제철거하자 이에 항의하던 김씨가 방안으로 들어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철거반원 이상진(53)씨가 발견, 인근